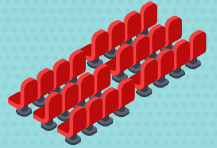


모노드라마 - 허각(with 유승우)



곡 설명

오랜 시간 함께 했던 연인은 많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고, 혼자 남아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때 우리는 외로워져요. 그래서 떠난 연인에게 뒤늦은 고백을 혼잣말로 하기도 합니다. '모노드라마'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.

가사 보기

조용히 앉아서 우릴 생각해 이렇게 돼버린 우릴

Jo-yonghi anj-aseo uril saenggakhae ireohge dwaebeorin uril

가만히 눈을 감고 널 기억해 네 얼굴 또 우리 둘

Gamanhi nun-eul gamgo neol gi-eokhae ne eolgul tto uri dul

난 또 서성이면서 우리를 생각해 이렇게 돼버린 우릴

Nan tto seoseong-imeonseo urireul saenggakhae ireohge dwaebeorin uril

절대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걸 어떡해 난 어떡해

Jeoldae dol-ikil su eopsgae dwaebearingeol eotteokhae nan eotteokhae

어쩌면 모두 끝났겠지만 어쩌면 돌이킬 순 없겠지만

Eojjeomyeon modu kkeutnassgessjiman eojjeomyeon fol-ikil sun eopsgessjiman

말도 안돼 자신 없단 말은 하지마 어떡해

Malo andwae jasin eopsdan mal-eun hajima eotteokhae

그리워 더 그리워 미칠 듯이 난 그리워

Geuri-wo deo geuri-wo michil deus-i nan geuri-wo

가사보기

너의 기억만 가득 남아서 이렇게 네가 그리워

Neo-ui gi-eokman gadeuk nam-aseo ireohge nega geuri-wo

사랑해 널 사랑해 미칠 듯 너를 사랑해

Saranghae neol saranghae michil deus neoreul saranghae

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속삭이는 고백

Nan gwaenchanh-a naneun gwaenchanh-a soksak-ineun gobaek

까맣게 그을린 밤이 찾아오고 네 방에 불이 켜지면

Kkamahge geu-eulrin bam-i chaja-ogo ne bang-e bul-i kyeojimyeon

흘러나오는 이 노랠 듣겠지 이렇게 날 듣겠지

Heulreona-oneun i norael deutgessji ireohge nal deutgessji

어쩌면 너무 늦었겠지만 어쩌면 너무 늦었겠지만

Eojjeomyeon neomu neujeossgessjiman eojjeomyeon neomu neujeossgessjiman

말도 안돼 자신 없단 말은 하지마 어떡해

Maldo andwae jasin eopsdan mal-eun hajima eotteokhae

그리워 더 그리워 미칠 듯이 난 그리워

Geuri-wo deo geuri-wo michil deus-i nan geuri-wo

너의 기억만 가득 남아서 이렇게 네가 그리워

Neo-ui gi-eokman gadeuk nam-aseo ireohge nega geuri-wo

사랑해 널 사랑해 미칠 듯 너를 사랑해

Saranghae neol saranghae michil deus neoreul saranghae

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속삭이는 고백

Nan gwaenchanh-a naneun gwaenchanh-a soksak-ineun gobaek

알아 난 나보다 널 더 많이 사랑한다고

Al-a nan naboda neol deo manh-i saranghandago

너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쉬며 살아갈 수 없어

Neo eops-ineun dan harudo sum swimyeo sal-agal su eops-eo

그리워 더 그리워 미칠 듯이 난 그리워

Geuri-wo deo geuri-wo michil deus-i nan geuri-wo

너의 기억만 가득 남아서 이렇게 네가 그리워

Neo-ui gi-eokman gadeuk nam-aseo ireohge nega geuri-wo

가사보기

사랑해 널 사랑해 미칠 듯 너를 사랑해

Saranghae neol saranghae michil deus neoreul saranghae

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속삭이는 고백

Nan gwaenchanh-a naneun gwaenchanh-a soksak-ineun gobaek

밤 하늘을 보며 너를 추억해 지울 수도 없는 너를

Bam haneul-eul bomyeo neoreul chu-eokhae ji-ul sudo eopsneun neoreul

문법학습

★ -아어 버리다

어떤 행동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나 이미 끝났음을 강조

‘아어 버리다’는 어떤 행동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행동이 끝난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나 아쉬움이 남을 때에 주로 사용한답니다.

- 1 가: 지난 주말에는 뭐 했어요?
나: 그동안 미웠던 빨래를 다 해버렸어요.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.
- 2 가: 표정이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
나: 어떡하지?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지워 버렸어.

★ -(으)면서

두 가지 동작이나 상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

음악을 듣는 것과 책을 읽는 것,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 것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한다고 표현할 때 ‘(으)면서’를 사용하고 있어요.

- 1 가: 주말에는 뭘 하는 편이에요?
나: 음, 보통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어요.
- 2 가: 혼자 운동하는 건 너무 지겨워.
나: 그럴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 덜 지겨울 거야.